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을 중심으로 한 적하수오와 백하수오에 대한 고찰

양소이¹ · 손인아¹ · 최효재² · 김지환^{1,2} · 이정운^{1,2,*}

¹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²부산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the Polygoni Multiflori Radix and Cynanchi Wilfordii Radix in Donguibogam and Donguisusebowon

Soyi Yang¹ · Ina Sohn¹ · Hyojae Choi² · Jihwan Kim^{1,2} · Jeongyun Lee^{1,2,*}

¹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Cynanchi Wilfordii Radix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unlike in China and Japan,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Polygoni Multiflori Radix and Cynanchi Wilfordii Radix in 『Donguibogam (東醫寶鑑)』 and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Methods

We examined the contents regarding Polygoni Multiflori Radix and Cynanchi Wilfordii Radix in 『Donguibogam』, 『Donguisusebowon』 and 『Dongmuyugo (東武遺稿)』.

Results and Conclusion

In the prescriptions of 『Donguibogam』, Polygoni Multiflori Radix was predominantly used. Cynanchi Wilfordii Radix was used in equal quantities with Polygoni Multiflori Radix in two prescriptions and was never used alone in a prescription without Polygoni Multiflori Radix. In the prescriptions of 『Donguisusebowon』, Cynanchi Wilfordii Radix was predominantly used. The only prescription using Polygoni Multiflori Radix is Jeokbaekhaogwanjung-tang (赤白何烏寬中湯), in which Polygoni Multiflori Radix and Cynanchi Wilfordii Radix were used in equal quantities. Je-ma Lee compared the efficacy of Cynanchi Wilfordii Radix and Ginseng Radix (人參), stating that Cynanchi Wilfordii Radix can substitute for ginseng but cannot be substituted when using more than 2 don (7.5 g) of ginseng. The ‘Hasuo (何首烏)’ in 『Dongmuyugo』 refers to Cynanchi Wilfordii Radix, but the medicinal properties section pertains to Polygoni Multiflori Radix. In ancient prescription (古方), Cynanchi Wilfordii Radix is considered an unfamiliar herb with limited experienc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ynanchi Wilfordii Radix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as ginseng for restoring the Yang energy of Soeumin, and it has been used in numerous prescriptions for Soeumin.

Key Words : Cynanchi Wilfordii Radix (白何首烏), Polygoni Multiflori Radix (赤何首烏),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Soeumin (少陰人),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Donguibogam (東醫寶鑑)

Received 27, October 2025 Revised 29, October 2025 Accepted 21, November 2025

*Corresponding author: Jeongyun L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iv. of Clinical Medicine 4,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50612, Korea
Tel: 055-360-5972, Fax: 050-4265-4047, E-mail: leejiyun@pusan.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e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서론

하수오(何首烏)는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에 최초로 명칭이 기록되었고 이후 다수의 문헌에 수록되어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백하수오(白何首烏)의 명칭은 중국이나 일본의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고, 『동의보감(東醫寶鑑)』,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등 한국의 문헌에만 등장함과 더불어 국내한의 임상 특히 사상의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¹. 사상의학의 원전인 『동의수세보원』에는 하수오의 명칭은 없고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대한민국약전의한약규격집은 적하수오의 정식 약명을 하수오(*Polygoni Multiflori Radix*)로 수록하고 있고, 백하수오는 정식 약명을 백수오(白首烏, *Cynanchi Wilfordii Radix*)로 수록하고 있다. 하수오는 마디풀과 (*Polygonaceae*)에 속한 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의 덩이뿌리이고, 백수오는 박주가리과 (*Asclepiadaceae*)에 속한 은조롱(큰조롱, 隔山消, *Cynanchum wilfordii* Hemsley)의 덩이뿌리로 기원 식물이 서로 다르다².

하수오는 한국과 더불어 북한, 중국과 일본 공정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반면 백수오는 중국과 일본 공정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과 북한에만 수록되어 있다. 수록 명칭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하수오와 백수오로 북한은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로 싣고 있다. 이는 한국과 북한은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를 모두 한의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적하수오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백하수오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문헌연구는 하수오와 백수오의 기원, 명칭 등의 구분에 관한 고찰 2편³, 하인음을 중심으로 하수오의 학질 치료 효능에 대한 고찰⁴, 적백하오관중탕의 기원, 변천과정 및 구성원리에 대한 고찰⁵, 적백하오관중탕을 중심으로 적백하수오 병용에 관해 고찰한 연구⁶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적하수오와

백하수오가 어떻게 구분되고 처방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동의수세보원』을 비롯한 사상의학 문헌의 적하수오와 백하수오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고유한 사상의학에서 백하수오가 가지는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동의보감』에서는 적하수오와 백하수오의 명칭이 어떻게 구분되고 처방에 사용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상의학 문헌인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四象草本卷)』, 이하 사상초본권, 『동의수세보원 갑오구본(甲午舊本)』, 이하 갑오구본, 『동의수세보원 신축본(辛丑本)』, 이하 신축본, 『동무유고(東武遺稿)』의 적하수오와 백하수오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 1) 『동의보감』은 한국한의학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한의학교전DB의 『동의보감』⁷을 저본으로 하였다.
- 2) 『사상초본권』은 집문당에서 2003년 출판한 『사상초본권』⁸을 저본으로 하였다.
- 3) 『갑오구본』, 『신축본』은 한국한의학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한의학교전DB의 『갑오구본』⁹, 『신축본』¹⁰을 저본으로 하였다.
- 4) 『동무유고』는 해동의학사에서 1999년 출판한 『동무유고』¹¹를 저본으로 하였다.

III. 본론

1. 『동의보감』에서의 적하수오와 백하수오

『동의보감』은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 적하수오는 주로 ‘하수오’라는 명칭으로 수록

되어 있고, 드물게 ‘홍내소(紅內消)’라는 이명(異名)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적하수오가 백하수오가 함께 처방에 사용된 경우에는 ‘적하수오’ 혹은 ‘하수오적색(赤色)’이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고, 이때 백하수오는 ‘백하수오’ 혹은 ‘하수오백색(白色)’이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 백하수오는 적하수오와 함께 처방에 사용된 경우만 있고, 적하수오 없이 단독으로 처방에 사용된 경우는 없다. 백하수오와 적하수오를 함께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 동량(同量)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하수오전(何首烏傳)』, 『개보본초(開寶本草)』, 『본초강목(本草綱目)』의 용례와 같다⁶. 『동의보감』에서 백하수오는 연년익수불로단(延年益壽不老丹)과 각로오수건양단(却老烏鬚健陽丹)의 두 처방에만 구성 약재로 수록되어 있고, 두 처방 모두 백하수오가 적하수오와 동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년익수불로단은 수명을 연장하는 약으로 적하수오, 백하수오 각 4냥을 사용하고, 각로오수건양단은 흰 수염과 머리카락을 검게 변하게 하는 약으로 적하수오, 백하수오 각 1근을 사용한다.

『동의보감』 탕액편(湯液篇)의 초부(草部)에서는 ‘何首烏 江原道名은조롱 黃海道名새박활화’로 하수오를 강원도에서는 ‘은조롱’, 황해도에서는 ‘새박활화’라 이름한다고 실려있다. 이처럼 하수오의 향약명을 기록한 것은 『동의보감』이 처음이고, ‘은조롱’은 백하수오의 우리말이다¹². 하지만 그 아래에 기재된 성미, 주치 및 약효, 유래, 성상, 수취법 등의 내용은 역대 본초서에서 적하수오에 대한 설명을 옮겨 실은 것이다. 『동의보감』 이래로 『제중신편(濟衆新編)』까지 하수오는 역대 본초서에서 적하수오의 성상과 약효, 복용법 등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그 기원종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이래로 사용해진 ‘은조롱’ 즉 백하수오로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동의보감』 탕액편(湯液篇)의 초부(草部)에서는 하수오가 나려(癩癧), 응종(癰腫), 오치(五痔), 담벽(痰癖), 풍허(風虛)로 몸이 몹시 상한 것, 부인의 출산

후 여러 가지 질환과 적백대하(赤白帶下)를 치료하며, 혈기를 보태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정수(精髓)를 채우고 모발을 검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하고 얼굴을 늙지 않게 하며 수명을 늘리는 것으로 주치와 약효를 적고 있다.

그리고 내경편(內景篇)의 신형문(身形門)과 정문(精門), 외형편(外形篇)의 모발문(毛髮門), 육문(肉門), 맥문(脈門), 근문(筋門), 족문(足門)에서 단방(單方)으로 하수오가 실려있고, 잡병편(雜病篇)의 잡방문(雜方門)에서 단곡불기약(斷穀不飢藥)으로 하수오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하수오를 단방으로 사용한 용례를 통해 수명을 늘리고, 정과 골수를 더하며,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오래된 허로(虛勞)로 인해 마른 것을 치료하고, 기운을 세어지게 하여 십이경락을 통하게 하며, 근력을 기르고, 골연풍(骨軟風)으로 허리와 무릎이 아픈 것을 치료하며, 곡식을 끊어도 배고프지 않게 하는 약으로 하수오의 효능을 정리할 수 있다.

2. 『동의수세보원』에서의 적하수오와 백하수오

1) 『동의수세보원』에서의 적하수오

『신축본』에 앞선 『사상초본권』과 『갑오구분』에서는 적하수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신축본』은 하수오를 적하수오로 기재하고 있으며, 적하수오가 사용된 처방은 적백하오관중탕(赤白何烏寬中湯)이 유일하다. 적백하오관중탕은 신정 소음인병 응용 요약 24방(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 하나로 사지가 권태하며 오줌이 잘 나가지 않으며 음경이 일어나지 않으며 장차 부종이 생길 징조가 있는 자에게 쓰는 처방이다¹⁾. 적백하오관중탕에서는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를 각 1돈씩 병용하는데 이는 『동의보감』에서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동량으로 사용한 용례와 같다. 그리고 적백하오

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赤白何烏寬中湯 白何首烏 赤何首烏 良薑 乾薑 靑皮 陳皮 香附子 益智仁 各一錢 棗二枚 治四體倦怠 小便不快 陽道不興 將有浮腫之漸者 用之

관중탕의 변방(變方)인 인삼백하오관중탕(人蔘白何烏寬中湯)과 당귀백하오관중탕(當歸白何烏寬中湯)은 적하수오를 각각 인삼과 당귀로 바꾸어 사용한다.

동무가 『신축본』에서 “四體倦怠 小便不快 陽道不興 將有浮腫之漸者”를 주치로 하는 적백하오관중탕을 새롭게 만들면서 보양정혈(補陽精血)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 『동의보감』의 연년익수불로단, 각로오수건양단의 용례와 같이 적하수오를 백하수오와 동량으로 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 향약(香藥)인 백하수오보다 당약(唐藥)인 적하수오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적백하오관중탕의 적하수오를 인삼 또는 당귀로 바꾸어 사용하는 변방들도 제시하였을 것이라고도 짐작된다. 그리고 적하수오를 인삼으로 바꾼 것은 보비익기(補脾益氣), 적하수오를 당귀로 바꾼 것은 보혈활혈(補血活血)의 강화에 그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동의수세보원』에서의 백하수오

『사상초본권』에서는 소음인 약방(藥方)에서 사군자탕(四君子湯)의 구성 약재로 백하오(白何烏)가 1차례 등장한다. 『갑오구본』에서는 신정 소음인병 응용약 22방 중 강출과적탕(薑朮破積湯), 백하오이중탕(白何烏理中湯), 삼십오미음(三十五味飲)의 3방에서 백하수오가 구성 약재로 사용된다. 그리고 소음인내촉위병론(少陰人內觸胃病論)에서 백하수오부자이중탕(白何首烏附子理中湯)이 1차례 언급된다.²⁾ 송원명 삼대의가 저술중 소음인병 경험행용요약 13방(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중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에서도 백복령(白茯苓)을 백하수오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삼(人蔘)은 귀한 약재이므로 가난한 집에서 구하기 어려울 때 인삼 1, 2돈은

혹 백하수오로 대용할 수 있지만, 인삼이 2돈 이상일 때는 백하수오로 대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³⁾

『신축본』에서는 백수오를 백하수오(白何首烏), 백하오(白何烏)로 기재하고 있으며, 백하수오가 사용된 처방은 신정 소음인병 응용약 24방 중 8방이다. 8방은 승양익기부자탕(升陽益氣附子湯), 승양익기탕(升陽益氣湯), 황기계지탕(黃芪桂枝湯), 향부자팔물탕(香附子八物湯), 적백하오관중탕(赤白何烏寬中湯), 산밀탕(蒜蜜湯), 백하오부자이중탕(白何烏附子理中湯), 백하오이중탕(白何烏理中湯)이고, 8방에 더해 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의 변방(變方)인 백하수오군자탕(白何首烏君子湯)과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도 백하수오가 사용된다. 그리고 소음인 신수열표열병론(腎受熱表熱病論) 말미의 토회증(吐蛔證)에서도 이중탕 가진피, 관계, 백하수오(加陳皮 官桂 白何首烏)가 사용된다⁴⁾.

그리고 『신축본』의 백하오이중탕에 대한 동무(東武)의 자주(自注)에서 백하수오와 인삼의 효능을 비교하였는데, 백하수오는 인삼과 그 성미(性味)가 유사하나 청월지력(淸越之力)은 인삼에 미치지 못하고 온보지력(溫補之力)은 인삼을 넘는다고 보았다. 이에 인삼이 있으면 인삼을 쓰되 인삼이 없으면 백하수오로 대신 쓸 수 있으나, 험병(險病)과 위증(危證)에 인삼 2돈 이상 쓸 때는 백하수오로 인삼을 대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방(古方)인 하인음(何人飲)에서 백하수오 5돈을 사용하여 학질(瘡病)을 치료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고방에서 백하수오는 경험이 적고 생소한 약제지만 보약(補藥) 중에서 뺄 수 없는 약재로 보았다.⁵⁾

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陰人內觸胃病論』 甲 7-59 凡少陰人病 先觀其心而 次察大便也 若其心歌 耿忽忽而 大便又清水則 病在極危之地也 急用 獨蔘 附子理中湯 若人蔘附子理中湯 勢在難得則 白何首 烏附子理中湯 亦必可用...

3)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 二十二方』 人蔘 附子 官桂 爲藥材之貴種 食窮艱難 之家 難得爲用 人蔘一二錢 或以白何首烏代用... 人蔘 二錢以上 不可以何首烏代用...

4)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51 論曰 此證 當用理中湯 日三四服 又連日服 或理 中湯加陳皮 官桂 白何首烏.

5)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白何烏理中湯... 有人蔘 則用人蔘 無人蔘 則 用白何首烏 白何首烏 與人蔘 性味相近 而淸越之力 不及 溫補之力 過之 不無異同之處 險病 危證 人蔘二 錢以上 不可全恃白何首烏代用 古方 經驗不多 藥材

하인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수오와 인삼을 군약(君藥)으로 하여 기혈(氣血)이 모두 허한 구학(久瘡)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경악전서(景岳全書)』에 처음 나온다. 그런데 『경악전서』의 하인음은 이후 중국 의서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 말기 『방약합편(方藥合編)』(1884년)에 수록되어 임상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신축본』(1901년)에서도 위와 같이 하인음이 언급되어 있다⁴. 정리해보면 『경악전서』의 하인음이 조선 말기 『방약합편』에 수록되어 사용된 이후, 동무는 사상의학적 견지에서 백하수오를 허증의 학질을 치료하는 소음인 보약으로써 인삼만큼이나 소음인의 정기(正氣) 즉 양난지기(陽煖之氣)를 보익(補益)하는데 중요한 약재로 인식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수의 소음인 처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상초본권』의 사군자탕과 『갑오구본』, 『신축본』의 향사육군자탕에서는 백복령이 빠지고 백하수오가 사용되었고, 인삼이 백하수오와 함께 사용되었다. 그리고 『갑오구본』의 백하오이중탕과 강출과적탕에서는 인삼 대신 백하수오만 사용되었고, 삼십오미음은 인삼과 백하수오가 함께 사용되었다. 『신축본』의 백하오이중탕, 백하오부자이중탕, 백하수오군자탕에서는 인삼 대신 백하수오만 사용되었고, 승양익기탕, 승양익기부자탕, 십전대보탕, 이중탕 가진피, 관계 백하수오는 인삼과 백하수오가 함께 사용되었다. 그리고 황기계지탕, 향부자팔물탕, 산밀탕은 백하수오만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하수오’ 즉 적하수오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백하수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중국과 일본의 공정서에 ‘하수오’ 즉 적하수오는 수록되어 있지만 ‘백수오’ 즉 백하수오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⁵. 또한, 동의보감의 처방에서도 ‘하수오’ 즉 적하수오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백하수오는 적하수오와 병용하여 두 처방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백하수오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사상의

학에서는 백하수오를 인삼만큼 소음인에게 중요한 보약이라고 인식하였고 『사상초본권』부터 『갑오구본』과 『신축본』에 걸쳐 다수의 소음인 처방에 사용하였다. 적하수오도 백하수오와 함께 소음인약으로 인식되었지만 『신축본』의 적백하오관중탕에서 백하수오와 병용하여 1차례 사용되었을 뿐이다.

3. 『동무유고』 약성가에서의 하수오

『동무유고』에는 ‘동무선사사상약성상험고(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와 ‘선사약성설가(先師藥性說歌)’의 2종류의 약성가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무유고 약성가로 알려진 것은 ‘선사약성설가’이다. ‘동무선사사상약성상험고’는 237종의 약에 대한 약성고가 형식으로 설명하고, ‘선사약성설가’에서는 소음인약 27종, 소양인약 27종, 태음인약 27종을 약성가로 모아 기록하고 있다. ‘선사약성설가’에는 적하수오나 백하수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무선사사상약성상험고’에는 비약(脾藥)에서 “何首烏 甘添精種子 黑髮悅顏 長生不死”로 하수오가 기재되어 있다¹¹.

‘동무선사사상약성상험고’는 『제중신편』, 『의학입문(醫學入門)』, 『방약합편(方藥合編)』의 약성가에 근거하고 있다. 약성가의 구성형태에 따라 그 연원이 다른데 8언2구(4언4구)의 형식일 경우 『제중신편』의 약성가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¹³. 이에 하수오 약성가의 연원이 되는 『제중신편』의 약성가에는 “何首烏 甘添精種子 黑髮悅顏長生不死 江原道名 온조 룡黃海道名 새박불휘 九蒸九曬用之忌銅鐵”로 적고 있다¹⁴. 『제중신편』의 약성가는 본조명 위쪽에 ‘唐’이라고 표기하여 향약과 수입 약재를 구분하고 있는데¹⁵, 하수오의 위쪽에는 ‘唐’이라는 표기가 없으며, ‘강원도명 온조 룡 황해도명 새박불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제중신편』 약성가의 하수오는 향약인 백하수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중신편』 약성가는 『만병회춘(萬病回春)』을 인용한 것으로, 『증보만병회춘(增補萬病回春)』 약성가에는 “何

生疎故也 此一味 必不可遺棄於補藥中 而古方 何人 飲 用白何首烏五錢 治瘡病.

首烏甘添精種子 黑髮悅顏長生不死 忌犯鐵器 九蒸九曬用之”라고 쓰여 있다¹⁶. 따라서 『제중신편』의 하수오 약성가는 『만병회춘』의 약성가 4언4구와 주의사항을 인용하면서 향약명을 추가하였고, 『동무유고』 ‘동무선사사상약성상험고가’는 『제중신편』의 약성가 4언4구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Table 1. The Medicinal Properties Songs of Hasuo (何首烏)

Source of the contents	Medicinal Properties Song (藥性歌)
增補萬病回春	何首烏甘添精種子 黑髮悅顏長生不死 忌犯鐵器九蒸九曬用之
濟衆新編	何首烏甘添精種子 黑髮悅顏長生不死 江原道名은조롱黃海道名새박불취九蒸九曬用之忌銅鐵
東武遺稿	何首烏甘添精種子 黑髮悅顏長生不死

정리하면 『동무유고』 ‘동무선사사상약성상험고가’의 비약 중 하나인 하수오는 향약인 백하수오를 의미하나, 약성가 4언4구는 『만병회춘』의 내용이 『제중신편』을 거쳐 그대로 인용된 것이므로 적하수오의 약성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을 비롯한 사상의학 문헌에서 적하수오와 백하수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고유한 사상의학에서 백하수오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의보감』에는 적하수오와 백하수오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적하수오는 주로 ‘하수오’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적하수오가 백하수오와 함께 처방에 사용된 경우에는 ‘적하수오’ 혹은 ‘하수오적색’의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때 백

하수오는 ‘백하수오’ 혹은 ‘하수오백색’의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의 처방에서는 ‘하수오’ 즉 적하수오가 대다수 사용되었다. 백하수오는 연년익수불로단과 각로오수건양단의 두 처방에서 적하수오와 동량으로 사용되었고 적하수오 없이 단독으로 처방에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동의보감』 탕액편 초부에 실려있는 ‘하수오’의 성미, 주치 및 약효, 유래, 성상, 수치법 등의 내용은 역대 본초서에서 적하수오에 대한 설명을 옮겨 실은 것이지만, 그 기원종은 ‘은조롱’ 즉 백하수오로 오인하여 기록하고 있었다.

2. 적하수오가 『사상초본권』과 『갑오구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신축본』에서는 적백하오관중탕에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적백하오관중탕에서는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를 각 1돈씩 병용하는데 이는 『동의보감』에서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동량으로 사용한 용례와 같았다. 반면 백하수오는 『사상초본권』의 시군자탕을 필두로 하여 『갑오구분』과 『신축본』의 여러 소음인 처방에 사용되었다. 신정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갑오구분』에서는 강출과적탕, 백하오이중탕, 삼십오미음, 『신축본』에서는 승양익기부자탕, 승양익기탕, 황기계지탕, 향부자팔물탕, 적백하오관중탕, 산밀탕, 백하오부자이중탕, 백하오이중탕에 더해 팔물군자탕의 변방인 백하수오군자탕과 십전대보탕에서 백하수오가 사용되었다.
3. 『갑오구분』에서는 인삼이 귀한 약재이므로 구하기 어려울 때 인삼 1, 2돈은 백하수오로 대용할 수 있지만, 인삼이 2돈 이상일 때는 백하수오로 대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축본』에서는 백하수오와 인삼의 효능을 비교(백하수오는 인삼과 성미가 유사하나 청월지력은 인삼에 미치지 못하고 온보지력은 인삼을 넘는다고 봄)하고 험병과 위증에 인삼 2돈 이상 쓸 때는 백하수오

인삼을 대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수오와 인삼을 군약으로 하여 구학에 사용하는 하인음을 소개하며, 고방에서는 백하수오가 경험이 적고 생소한 약재지만 사상의학적 견지에서는 허증의 학질을 치료하는 소음인 보약으로 보았다. 이에 백하수오를 인삼만큼이나 소음인의 정기 즉 보명지주(양난지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약재로 인식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수의 소음인 처방에 사용하였다.

- 『동무유고』 ‘동무선사사상약성상협고’의 비약 중 하나로 수록된 하수오는 백하수오를 의미하나, 약성가 4연4구는 『만병회춘』의 내용이 『제중신편』을 거쳐 그대로 인용된 것이므로 적하수오의 약성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V. 사사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VI. 참고문헌

- Choi HS, Jhu MF, Kim CS, Lee JH. Studies of Name and Herbal Origins of Ha-Soo-Oh.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3;9(1):81-89. (Korean)
- National Korean Medical University Common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Herbal Pharmacology. 4th ed. Seoul: Yeongrimsa. 2020.
- Kim YU, Keum KS. A Comparative Study on the Flowery Knotweed Root and Auriculate Swallowwort Root in Medical Tex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2009;15(2):77-91. (Korean)
- Baik YS, Kim DH. A Study on the Efficacy of Polygonum multiflorum on Malaria Treatment - Focused on Herenyin -.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9;32(1):159-169. (Korean) DOI: 10.14369/jkmc.2019.32.1.159
- Shin SW, Kim YH, Yu JH, Lee JH, Kho BH, Lee EJ.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ve Principles of Jeokbaekhaogwanjung-tang. JSCIM. 2010;22(2):28-36. (Korean)
- Yang CG. History of Lee's 『Jeokbaekhaogwanjung-tang』 using both Polygoni multiflori radix and Cynanchi wilfordii radix. JSCIM. 1995;7(1):303-304. (Korean)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MEDI-CLASSICS. Retrieved October 25, 2025, Available from: URL: <https://medicclassics.kr/books/8>.
- Lee JM (translation by Park SS). Donguisusebowon Sasangchobongwon. Seoul: jibmundang. 2003.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MEDI-CLASSICS. Retrieved October 25, 2025, Available from: URL: <https://medicclassics.kr/books/183>.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MEDI-CLASSICS. Retrieved October 25, 2025, Available from: URL: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Lee JM (translation by Ryang BM and Cha GS). Dongmuyugo. Seoul: Haedonguihaksa. 1999.
- Ku TH (2020). Discussion on the origin of Polygoni multiflori Radix (Doctoral dissertation). Dong-Eui University.
- Park SS. A Study on the 『DongMuSunSaSaSang YakSungSangHumGoGa』's Origin and Meaning. JSCIM. 2002;14(2)1-9. (Korean)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igital Jangseogak. Retrieved October 25, 2025, Available from: URL: https://jsg.aks.ac.kr/viewer/viewIMok?dataId=K3-371%7C005&itemCode=TEXT_ARC_AA#n

ode?depth=2&cupPath=002&dataId=055.

15. Oh CK, Yoon CY. A Study on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 of Medical books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24(3)49-64. (Korean)
16.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igital Jangseogak. Retrieved October 25, 2025, Available from: URL: https://jsg.aks.ac.kr/viewer/viewIMok?dataId=K3-377%7C001&itemCode=TEXT_ARC_AA#n

ode?depth=2&cupPath=002&dataId=037.

<저자들의 소속 및 지위>

양소이/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대학원생
 손인아/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대학원생
 최효재/부산대학교 한방병원/전공의
 김지환/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교수
 이정윤/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교수